

# 양극화 뚜렷한 노령연금...전남 수급액 최저

## ■노령연금 지역별 평균 수급액 (2019년8월 기준, 단위:명, 원)

| 지역 | 수급자수      | 평균 수급액  |
|----|-----------|---------|
| 전국 | 3,916,280 | 41만6571 |
| 울산 | 80,875    | 58만6968 |
| 서울 | 706,737   | 44만8789 |
| 경기 | 813,896   | 44만1119 |
| 세종 | 15,711    | 43만7591 |
| 인천 | 193,385   | 43만4496 |
| 부산 | 316,063   | 42만4425 |
| 대전 | 96,538    | 42만4382 |
| 경남 | 280,046   | 41만6921 |
| 대구 | 192,394   | 39만3952 |
| 충북 | 129,565   | 39만0059 |
| 광주 | 93,714    | 38만8010 |
| 강원 | 131,942   | 38만6299 |
| 경북 | 274,923   | 38만5261 |
| 제주 | 49,195    | 37만5811 |
| 충남 | 174,481   | 36만2584 |
| 전북 | 173,297   | 34만1356 |
| 전남 | 193,518   | 33만3183 |

(자료:국민연금공단)

광주 38만8010원 11번째·지급액 인상률 8.4% 하위권  
전남 33만3183원...평균 수급액·인상률 6년 연속 꼴찌

낮은 소득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전남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과 인상률이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수입이 불규칙적인 농어민이 많은 전남지역의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광주 38만8010원·전남 33만3183원으로 집계됐다. 수급자 수는 광주 9만3714명·전남 19만3518명으로, 각각 전체(391만6280명)의 2.3%, 4.9%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평균 수급액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1위인 울산(58만6968원), 2위 서울(44만8789원)과는 11만5000원부터 25만3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광주 수급액도 평균 수급액(41만6571원)을 크게 밑돌며 11번째를 차지했다.

농어업인이 많은 전남지역 특성상 소득

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가 많은 탓에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7년 연속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매년 9~11위를 오가며 하위권을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8년 노령연금 총 지급액의 전년비 인상률은 광주 8.4%·전남 7.5%로, 각각 14번째와 꼴찌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9.1%)을 밑돌았다. 전남 지급액 인상률은 증감률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6년째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 역시 이 기간 동안 하위권을 전전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초 급여 가운데 하나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고령층이 10년 이상 납부해 60세 이상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지역민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노후 준비 방법이다.

지난해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 77.2%·전남 69.3%)는 지역민 가운데

그 방법을 국민연금으로 꼽은 비율은 광주 58.8%, 전남 43.4%에 달한다. 이 답변율은 전년에 비해 광주 5%포인트, 전남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민연금 광주본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기본 납부 연수인 10년을 다 채울 수 없는 가입자를 위한 '특별 노령연금'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올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기준 소득 금액을 지난해와 같은 월 97만원으로 동결하고 지원기한은 2024년 12월까지로 5년 연장했다. 올해 국민연금 연금액은 전년도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인상되며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한편 광주·전남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120만 명을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자 수는 광주 51만7000명·전남 69만7000명 등 121만4000명을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6000명(0.4%)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29.26 (+22.87) ▼ 금리(국고채 3년) 1.42 (-0.01)
- ▲ 코스닥 679.22 (+6.19) ▼ 환율(USD) 1156.00 (-5.30)

## 현대·기아차, 납품대금 1조원 설 전 지급

3000여개 협력사 자금난 해결  
은누리 상품권 118억 구매도

현대자동차그룹은 설을 앞두고 협력사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1조73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은누리 상품권 118억원을 구매해 전통시장 살리기도 나선다.

납품대금 조기지급 대상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위아 등 6개 회사에 부품,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개 협력사다.

현대차그룹은 이들에게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일찍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들은 협력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했다.

아울러 1차 협력사들도 설 연휴 전에 2·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오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1조1295억원, 1조4181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설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은누리상품권 약 117억9000만원어치를 구매하고 국내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현대차그룹은 13~23일 2주 동안 그룹 16개 계열사 임직원들이 결연시설과 소외이웃을 방문해 명절 선물과 생필품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29일까지 공모

임용기간 11월 15일까지

광주경제컨트롤타워인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공모한다. 김성진 전 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달 퇴임하면서 후임 인선을 위한 조치다.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원장직에 대한 지원 접수를 받는다.

임용기간은 선임일로부터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인 올해 11월15일까지

며,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신임 원장의 기본 연봉은 87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6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자격요건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달 퇴임하면서 후임 인선을 위한 조치다.

지원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친 뒤 이사회 공개검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 등 절차를 밟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디자인센터 기업홍보관 베트남 호치민에 3개월 운영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성호)는 지난 8~11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디자인기업 수출상담, 광주 주력산업 기업 브랜드 론칭 및 홍보관 개설 등 지역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호치민 최대 쇼핑몰인 '반한몰'(VANHANH MALL)에 광주디자인센터 기업홍보관을 개설, 앞으로 3개월간 운영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



## 광주·전남 아파트 공급 소폭 줄지만 '올해도 매력적'

지역업체 아파트 8961가구 공급  
민간공원특례·지하철 등 호재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업체는 올해 지역 주택시장은 지난해보다 물량이 소폭 줄겠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에 비해 규제의 칼날이 비껴간 데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화, 한전공대 설립, 빛그린산단 작공 등 각종 부동산 호재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취합한 광주·전남 아파트 공급 현황을 보면 올해 아파트 공급물량은 8961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9370가구보다 약 5% 감소한 물량이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수도권의 대형업체를 더하면 2만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역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한 아파트 물량은 광주 5624가구, 전남 3746가구 등 총 9370가구다. 이는 당초 공급계획 물량 6742가구 대비 38.9% 증가했다.

광주·전남 아파트 공급물량은 2010년 3003가구에서 2011년 1만581가구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2년 1만2500가구를 기록했다. 이후 2013년 5889가구가 줄었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만가구를 상회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7000가구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주택업체는 타지역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2013년 2만1000여가구, 2014년 3만2013가구, 2015년 4만4395가구를 공급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3만9672가구, 2017년 2만2487가구, 2018년 1만9059가구가 줄곤 줄기, 지난해 2만5349가구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중흥건설·호반건설 등 전국 브랜드

를 가진 지역주택건설업체가 타지역 택지 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은 수주 규모 1조원을 돌파했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광주·대구·대전 등 일부 투자수요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 미분양물량의 90%가 지방에 몰려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수년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과감한 규제 완화로 지방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가전 본질은 편리함...대우위니아, 브랜드 슬로건 발표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등 활용  
'위니아스토리'서 이벤트 진행도

대우위니아그룹의 가전 계열사 위니아팀체와 위니아대우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MAKE IT EASY' (편하게 하다)를 13일 발표했다.

새 슬로건에는 위니아가 규정한 가전의 본질적 가치인 '편리함'과 '사용하기 편하고 믿음직한 제품력으로 삶을 개선해 가치를 더한다'는 브랜드 정체성을 담았다.

대우위니아그룹은 'MAKE IT EASY



'로 가전제품의 본질에 강한 브랜드가 바로 위니아(WINIA)임을 내세우며 브랜드 정체성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슬로건은 국내외 커뮤니케이션과 해외 마케팅에 활용된다. '위니아스토리' 페이스북 채널에서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 모던 스타일 Modern!

### 클래식 스타일 Classic!

###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